주일 예배 2024년 4월 28일

오전 8시: 드림 워십 인도: 이재환 목사
오전 10시: 글로리 워십 인도: 최순성 목사
오후 12시: 블레싱 워십

* **경배와 찬양** ..... **두나미스 찬양팀**
Worship Song — Dunamis Praise

* **기 원** ..... **인도자**
Invocation — Presider

* **성시교독** ..... **제14번(시편 24편)** ..... **다같이**
Responsive Reading — **'#14(Psalms 24)'** — Together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Confession of faith — **'Apostles' Creed'** — Together

찬 송 ..... **새428장(통488)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 **다같이**
Hymn — **'There's Sunshine in My Soul Today'** — Together

기 도 ..... **방용복 장로**
Prayer — Elder. Yong Bok Bang

성경봉독 ..... **출애굽기15:22-27** ..... **인도자**
Scripture — **'Exodus 15:22-27'** — Presider

* **봉 헌** ..... **새213장(통348) '나의 생명 드리니'(1,4절)** ..... **다같이**
Offering — **'Take My Life, and Let It Be'** — Together

찬 양 ..... **'우물가의 여인처럼'** ..... **글로리아 찬양대**
Anthem — Gloria Choir

설 교 ..... **"여호와 라파"** ..... **김학진 목사**
Preaching — **"Jehovah-Rapha"** — Rev. Hak Jin Kim

* **찬 송** ..... **새286장(통218)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 **다같이**
Hymn — **'Come Into My Heart, Blessed Jesus'** — Together

* **축 도** ..... **김학진 목사**
Benediction — Rev. Hak Jin Kim

교회소식
Announcements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시편 29:2

(* 표는 가능하면 일어나심 / Stand if able)

교회소식

1. 오늘 뉴장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 2024년 시무 은퇴식. 오늘(4월 28일) 10시 글로리 워십 후 시무 은퇴식이 있습니다. 대상: 유준호, 곽기덕, 박명규(시무장로)

3. 선교바자회 성료. 비전 챌린지 단기선교 팀 후원을 위한 바자회가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 단기 선교로 나가는 팀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4. 목장 리더모임. 일시: 다음 주일(5/5) 오후 12시 장소: 새가족실

5. 각 선교회 월례회 모임.
오늘(4/28) 오전 10시 글로리 워십 후 각 선교회 월례회로 모입니다.
장소: 2선교회(시온홀) 3선교회(선교부실) 4선교회(두란노실) 5선교회(찬양대 연습실) 6선교회(벧엘홀) *교회 밴은 오후 1시에 출발합니다.

6. 떡 제공 감사.
박상우 장로/백미화 집사 가정에서 부친(고)박선관 장로의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전교인에게 떡을 제공하였습니다. 유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 교역자 동정. 최순성목사(4/30-5/21 휴가)
쉼과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생명의 삶 5월호. 사무실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9. 하루를 여는 묵상(Q.T)말씀.
월| 열왕기상 11:14-25 화| 열왕기상 11:26-43 수| 열왕기상 12:1-11
목| 열왕기상 12:12-20 금| 열왕기상 12:21-33 토| 열왕기상 13:1-10

금주의 양육과 훈련

공동체 성경읽기(토요). 마가복음 11-16장 오전 7시-7시 45분 장소: 새가족실
남제자반(주일). 제 3권 8과 '신앙 인격의 연단'
공동체 서적읽기(주일).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엘리자베스 엘리엇)-5과"
오후 1시 45분-2시 45분 장소: 새가족실

기관소식

어린이 주일 행사. 일시: 5/5(다음 주일) 오후 1:15-2:15 장소: 실로암(체육관)
다양한 게임 및 간식이 제공 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통부. 버스(밴)운전 봉사자를 찾습니다.
문의: 방용복 장로(646)236-2554 교회사무실(718)706-0100

교우소식

출국. 박경희
출타. 송성렬/장미혜
병고. 김희숙A, 박경숙A, 박혜숙, 서매자, 신명희, 오은숙, 이명숙, 영어회중: 로사 유

지난주 설교요약

"주님, 사명으로 비상하게 하소서!"

본문: 마태복음 4:18-20

지난 사흘 동안 김학진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뉴욕장로교회에서 말씀으로 섬길 수 있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단 한 번 살아가는 인생,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죽을지 사명을 발견하고 멋지게 인생을 불태우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영국 웨일즈에 교인이 8명밖에 되지 않는 조그마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한국 사람들이 꽃을 사 들고 이 교회에 와서 기념을 합니다. 그 교회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 개신교 선교사로 첫 순교를 당한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하노버 개혁 교회입니다. 대원군 시절 미국 상선이 한국으로 들어오자 배를 불태우고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때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책을 가득 들고 붙잡혀가 목 베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27세였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흔적을 조사했던 닥터 프라이스는 토마스 기념교회 자리였던 평양 과학 기술대학교 포스트가 세워진 곳에서 이렇게 결단합니다. "주님 제가 내 생애 다시는 내 인생을 내 목적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이 젊은이의 피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리라" 닥터 프라이스는 뉴잉글랜드 지역 Top 25에 드는 특별한 의사였지만 한참 일할 수 있는 나이에 모든 직업을 그만 두고 세계 선교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의 멋진 인생을 재편성하고 인생을 불태우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 앞에 부름 받아 자기 인생을 정말 멋지게 일생동안 불태운 사람, 베드로의 스토리입니다. 베드로의 관한 말씀을 통해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에 관심이 있으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미천한 베드로를 하나님은 다듬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아섰던 것이 베드로였고, 예수님이 잡히자 배신했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베드로였지만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기에 그를 훈련하셔서 마침내 사도행전의 위대한 명장 베드로가 탄생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을까요? 바로 한 영혼, 죽어 있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영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영혼에 관심이 없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후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의 심장에 새겨지니 모든 관심이 달라졌습니다. 베드로의 관심도 이제 한 영혼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를 영혼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 있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일을 위해서 결단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는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 부친까지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데 고난이 없다면 내가 정말 주님을 바르게 따라가고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따를 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좁은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한 번 사는 땅 위의 인생입니다. 오늘 부흥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 한 번의 인생에 가장 의미 있게 살기를 열망하는 사람,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멋지게 우리의 인생을 불태우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찬란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